

## 작가 장정일의 탄생과 문학 정치에 관한 연구\*

이형진\*\*

### 〈차 례〉

1. 문학적 민주주의와 서술 주체의 특이성
2. 권력의 심급 탐구와 자기 존재의 인식
3. 서술 주체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 여호와의 증인과 독학
  - 3.1. '여호와의 증인'과 제도교육의 거부
  - 3.2. 독학을 통한 서술 주체로의 이행
4. 글을 나오며: 독학자의 존재 방식

### 【국문초록】

이 글은 장정일이 일상에서 작동하는 미시 권력의 통치술과 길  
항관계를 맺으며 작가로 변모하는 주체화의 과정을 살폈다. 먼저,  
장정일이 시에서 성장사의 여러 질곡에 개입한 권력의 통치술을  
탐색하고 권력관계로부터 부여된 실존을 진술하는 것을 살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38978)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사

그는 시를 통해 한국사회를 둘러싼 국제적 정치 지형도를 냉전 체제의 산물로 파악하고 자신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여러 타자를 낙태된 존재로 인식하였다. 장정일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권력과 그것의 효과로 구성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장정일이 권력관계를 거부하고 서술 주체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살폈다. 장정일은 사회의 재생산 기관인 제도교육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선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이 표방한 병역 거부는 반공주의를 근간으로 삼은 국가의 통치성과 냉전체제를 전면에서 부인한다. 이후 장정일은 자신이 그토록 거부한 학교와 유사한 공간인 소년원에 수감된다. 장정일은 독서를 통해 소년원 생활을 견뎌고 작가로 변모할 수 있었다. 작가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은 관변 운동으로 시행된 자유교양운동과 문고본으로 인해 구축될 수 있었다. 그는 당대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독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의 전략인 독학은 제도와 사회로부터 누락되고 배제된 자기 존재를 다시 길어내는 윤리적 행동이다. 그는 독학을 통해 서술 주체로 이행하여 자리 나눔과 분배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을 극복하고 문학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정일 문학에 드러난 문학의 정치이다.

주제어: 장정일, 독학, 문학의 정치, 삼중당 문고, 주체화, 서술 주체

## 1. 문학적 민주주의와 서술 주체의 특이성

이 글은 장정일의 서술 주체화 과정이 1980년대 문학장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1984년에 데뷔한 장정일은 한국 문단에서 특이한 존재이다. 그는 동시대의 서술 주체인 민중처럼 ‘문학

적 민주주의'1)의 생태 환경에서 작가로 거듭났다. 그러나 장정일의 서술 주체화는 민중문학론이 서술 주체로 인정한 민중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민중문학론은 전문작가들의 전문성에 의존했던 문단의 풍토를 반성하고 민중을 서술 주체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문학 지형도는 대중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문학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김명인은 문학에서 대중의 소외화 현상을 문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간 문학장은 소수의 작가와 다수의 독자 대중으로 분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독자 대중은 문학이라는 상품의 소비자 혹은 일반적인 수용자로 소외되었다. 그는 진정한 문학운동이 전개되기 위해서 대중의 소외화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중 스스로가 “비평하며 대중이 형성해 나가는 문학을 건설”2)하는 것이 문학운동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김명인은 문학창작의 가능성에서 전문가와 대중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중관이 문학운동의 핵심으로 설정될 때 다양한 문학창작의 가능성이 현실태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 ① 그러므로 민중문화운동은 문화의 독점구조를 부수고 모든 문화적 생산물의 창조와 수용을 민중 스스로 향유하는 민중 주체의 민중문화 실현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1) 배하은은 1970~1980년대의 노동자 수기가 문학장으로 수용되어 문학 개념과 문학 장르의 근본을 재고하도록 하였다고 논구한다. 배하은은 1980년대 한국문학 지형도를 ‘문학적 민주주의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문학적 민주주의의 특징은 ‘글쓰기의 복권’이다. 이것은 특정한 문학이 등장하여 그간 억압되었던 다양한 문자 행위가 복권되는 현상이다.(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39-140)

2) 김명인,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p. 53.

② 여기서 우리는 문화상의 모든 민중적 노력이 민중의 자주적 인간으로서 자기 발현과 그 확산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3)</sup>

③ 결국 인간의 총체적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극복됨으로써 진정 인간다운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중적 문화로 정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중문화운동은 그것을 극복하는 문화적 노력으로서 그때그때 민중의 총체적 자기 해방에 적응하는 문화형태로 변형되어 나가야 한다.<sup>4)</sup>

민중문학(문화)에 관한 논의들은 ① 문화의 독점 구조를 반성적으로 비판하고 ② 민중의 능동적인 주체화를 슬로건으로 삼아 ③ 민중문화의 정립과 민중의 자기 해방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민중문학론의 요체는 지식인으로 한정된 문학 서술 주체의 외연이 민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민중은 문화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민중문학론의 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의 형태와 내용이 자기표현이라는 대중의 요구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둘째, 1970년대 중후반부터 민중이 문학의 서술 주체로 등장하였다. 문학의 주변에 위치하던 하위주체가 문학의 서술 주체로 등장한 1970~1980년대를 ‘문학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문학은 근대지식의 체계에서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다. 문해력, 학력, 경제적 조건 등의 상징 자본을 갖춘 자는 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징 자본은 문학의 서술 주체로 이행할 수 있는 자와 이행할 수 없는 자라는 감각의 분할을 재생산하는 기제였다.

3) 채광석, 「민중문화운동의 방향」, 『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p. 182.

4) 채광석, 위의 책, p. 186.

그러나 민중문학론은 집단운동의 보편성과 완결성을 내적 논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민중은 외연이 광범위하고 민중을 이루는 구성원이 다양하다. 그래서 민중적 민족주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민중의 이념적 토대로 작동했고, 농민·노동자·도시 빈민 등이 민중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편, 민중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을 노동자로 설정함으로써 민중이 노동자로 환원되는 여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서술 주체를 다각화하려는 담론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민중문학론의 서술 주체가 노동자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민중문학론은 그러한 주체성에 걸맞은 문학의 양식으로 리얼리즘을 글쓰기의 규범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문제점은 새로운 서술 주체로 민중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역학이다. 민중문학론은 민중주의, 노동 담론, 민주화 담론 등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민중을 운동과 창작의 주체로 설정한다. 그런데 집단적 주체가 운동과 창작의 주체로 설정되면 집단성으로 수렴될 수 없는 다양한 존재들의 특이성, 특이성을 표명하는 서사가 집단의 서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문학적 민주주의는 문학의 서술 주체를 지식인에서 민중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독점구조를 반성·비판하는 분위기에서 태동하였다. 민중문학론이 문학의 배면에서 복권하려는 민중은 이단이다. 이단은 역사가들로부터 특정한 형상과 자리, 고정된 이름을 부여받았던 존재이다. 민중문학론은 문학의 배면에 존재했던 이단인 민중을 문학의 서술 주체로 전망하면서도 문학의 이념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망탈리테로 환원하고 그들의 자리를 영토화한다. 문학의 영토화는 이단인 민중의 글쓰기를 노조와 이념·특출한 노동자라는 고유명과 집단의 연대기적 문학 활동·민중주의 등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민중은 물론이고 민중으로 수렴될 수 없는 존재와 글쓰기의 특이성은 고유한 이름과 자리로 정

체화된다.<sup>5)</sup>

서술 주체에 관한 1980년대 문학론의 근본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중문학론은 서술 주체화의 과정을 통해 글을 쓰는 존재로 거듭나는 하위 주체들을 발견하고 담론화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기교와 문체, 새로운 내용과 유형의 출현에 앞서 이러한 존재들의 서술 주체화가 중요하다. 이들의 서술 주체화는 사회에서 공적인 글을 쓰거나 공적인 발화할 수 없는 존재가 글쓰기를 수행하는 서술 주체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들의 주체화와 글쓰기는 자신에게 삼투되는 사회의 규약과 계율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도덕적 완성에 값할 만한 어떤 존재방식을 스스로 정”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6)</sup> 그들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서술 주체의 자리를 꿈꾸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주체화는 윤리적 행동이다.<sup>7)</sup> 윤리적 행동은 규칙과 법률,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 혹은 일련의 행위로 귀착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에서 할당하는 정체화와 그에 따른 감각을 초과하여 자기의 존재와 경험을 성찰하고 존재방식을

5) 민주주의 시대의 존재들은 고유한 이름과 형상을 갖지 않고 사회의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말들의 과도함을 생산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랑시에르는 이들을 이단(heresy)라고 명명한다. 한편, 이단이 망탈리테(사회적 일반적 심성 구조)로 대체되는 것은 영도화이다. 영도화는 “말들과 표징들의 조합 안에서 자신을 이해 가능한 것이 되게끔 하는 글쓰기 형식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은 존재와 글쓰기의 특이성에 특정한 형상을 부여하여 사회의 언어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환원한다.(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역, 『역사의 이름들-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 울력, 2011, pp. 160-184)

6) 미셸 푸코, 이혜숙·이영목 역, 『성의 역사 3-자기 배려』, 나남, 2004, p. 44.

7) 여기서 윤리적 행동이란 주체가 윤리적 주체로 나아가려는 실천이다. 우리는 존재가 법칙과 법률, 규율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동을 개별화하여 ‘특이한 광채’를 발현하기 위한 실천이다. 이것은 통치성이 할당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동일시(다른 자리로의 이행)로 향한다. 하위주체의 서술 주체화는 정체화의 논리로 구축된 감각과 자리를 넘어서는 점에서 윤리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미셸 푸코, 같은 책, p. 44)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본고는 문학적 민주주의와 윤리적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작가 장정일의 탄생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정일의 탄생은 민중론과 노동담론의 자장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아버지와의 불화, 종교적인 몰입, 소년원의 경험 등 그것은 소외화 과정이라는 말 이외의 것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파편적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은 그의 삶이 애시당초 ‘90년대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또한 80년대를 살았지만 그 삶은 ‘80년대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sup>8)</sup>

위의 인용문은 ‘80년대적인 것’과 장정일이 맺는 시대적 관계에 주목한다. “아버지와의 불화, 종교적인 몰입, 소년원의 경험”은 통치술이 개인에게 행사되어 드러난 결과이면서도 다른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서사를 구축한다. 이 글에서는 장정일의 경험이 민중·노동·민주화 담론과의 상관성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는 장정일이 문학적 민주주의의 자장에서 등장한 작가임에도 1980년대의 주된 서술 주체인 민중(특히 노동자)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즉, 위의 인용문은 1980년대에 대한 장정일의 경험이 다른 서술 주체와 공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9)</sup>

장정일 문학에 대한 논의들은 권력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장정일의 비판을 추동하는 근

8) 방민호, 「그를 믿어야 할 것인가 - 장정일 소설론」, 창비, 『창작과비평』 제 88호, 1995, p. 83.

9) 장정일과 민중주의 간의 거리는 엄경희의 글에서도 지적된다. 엄경희는 장정일의 시가 민중시의 인식을 넘어서는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고 논의하였다.(엄경희, 「장정일 시에 나타난 사디즘Sadism으로서의 현실인식」, 한국교육어문연구회, 『어문연구』 제33집 제4호, 2005, p. 303)

간이 작가가 시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배태되고 전개된다는 상식을 상기하면, 작가의 ‘주체화 과정’<sup>10)</sup>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가의 주체화 과정을 논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장정일이 작가로 변모하는 과정은 일상에 작동하는 미시 권력의 통치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동되었다고 생각한다. 작가에게 삼투되는 권력의 통치술은 냉전체제 하의 반공주의와 군사주의, 유신체제 이후 더 촘촘하게 엮어진 일상의 관리술이다. 그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1980년대 사회는 1970년대 권력 통치술의 유제를 이어받은 것이면서도 1970년대의 종식과 양상을 달리하였다. 권력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정치·사회·문화의 급격한 변동,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주체들의 증가, 계급 분화 및 균열의 심각성 등이 1980년대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작가 장정일의 탄생은 정치·사회·문화의 급격한 변동과 맞물린다. 이 글은 시대적 문맥을 고려하여 작가 장정일의 탄생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비행자였던 장정일이 작가로 변모하기 위해 실천한 행동과 그것의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1980년대 문학적 민주주의의 서술 주체는 민중처럼 집단적 주체만으로 상징될 수 없다. 문학적 민주주의는 말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가 소설 속 영웅들의 삶을 전유(專有)하거나 작가가 된다는지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자유로

10) 권명아는 장정일의 주체화를 다룬 바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장정일은 냉전체제의 범질서가 부과한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주체화는 소년범이 작가로 이행하는 서술 주체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냉전체제 하 풍기문란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외설 시비로 법 앞에서 소환된 작가의 주체화를 탐색한다.(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p. 314)



운 문자 체제'<sup>11)</sup>의 출현이다. 이 글은 장정일이 문학을 전유하는 특정한 방식을 살필 것이다.

## 2. 권력의 심금 탐구와 자기 존재의 인식

1962년,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음으로써 박정희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해이다. 박정희 체제는 소위 국가 동원체제로 일컬어지고 그것의 근간은 일제의 파시즘 체제이다. 국가 동원체제는 국가주의를 근간으로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권력-장치를 활용하고 국민의 동의와 행위를 끌어내는 근대의 통치술이다. 1962년 1월 6일 경북 달성군에서 태어난 장정일의 생애사적 질곡은,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박정희 체제로 이행한 상황과 맞물린다. 장정일은 여러 시에서 자기 존재와 자기에게 부과된 여러 질곡을 통치술과의 관계에서 탐색한다. 다음의 시는 태어나자마자 권력으로부터 부과된 시인의 주체성을 진술한다.

나는 세계의 비밀을 안다  
 나는 숨겨진 세계의 스캔들을 알고 있다  
 미안하게도 나는 세계의 치부를 알아 버렸다.  
 1962년 1월 6일 새벽 4시 41분  
 나는 세계의 배후에 도사린 거대한 범죄의 흑막을 알아버렸다

나는 말해야겠다  
 교황청의 사자가 나를 파문시키기 전에  
 씨아이에이와 케이지비가 경쟁하듯  
 나를 예비검속하기 전에

11)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제2판, 인간사랑, 2011, p. 25.

혹은 도덕재무장운동의 청년회원에게  
런치당하기 전에  
나는 서둘러 말해야겠다  
세계의 배후가 보관하고 있는  
치사한 극비사항을

세계의 비밀이란 나는 부모의 태로부터 낙태당했다는 것  
나쁜 아니라  
혈통 좋다는 너, 너, 너, 너마저  
한날 지구란 쓰레기통에 버려진  
낙태아라는 사실!  
익명으로 이루어진 인류  
우리 모두는 방금 대학을 빠져나온 서툰 인턴에게  
카, 카, 칼질당했다

들어라 원숭이들아  
누렁이 흰둥이 검둥이 오랑우탄  
연속된 낙태에 의해 세계는 존속하여 왔다  
들어라 살인자들아  
육군 해군 장군 명군  
살인자란 살인자 모두 들어라  
세계는 태아살해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세계의 비밀  
세계의 스캔들이다)

「극비」 전문<sup>12)</sup>

시에 드러난 극비란 세계의 모든 존재가 부모로부터 낙태 당한  
운명을 짊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무수한 “태아살해”로  
존속해 왔다. 주목할 점은 세계의 비밀을 보관하는 배후 세력이다.

12) 장정일, 「극비」,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8, pp. 54-55.

배후 세력은 교황청의 사자, CIA와 KGB, 도덕재무장운동의 청년 회원 등으로 드러난다. 시에서 묘사된 배후 세력은 1960년대 한반도의 이념 정치와 맞물린다.

가령, 교황청은 주교 패트릭 번을 한반도에 파견하여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다. 미군정 시기에는 남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1963년 12월에는 남한과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교황청의 행보는 미국과 연합하여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는다.<sup>13)</sup> 시인에게 교황청은 CIA와 KGB처럼 냉전체제의 역학 속에서 남한의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권력-장치로 인식된다. 시인은 도덕재무장운동도 권력-장치로 인식한다.<sup>14)</sup>

위의 시는 시인이 교황청, CIA와 KGB, 도덕재무장운동 모두 1960년대 남한의 이념 정치에 개입한 세력으로, 낙태당한 자의 운

13) 교황청이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활동에 관해서는 황소희, 「비정부기구정치학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교황청」,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제35집 제3호, 2021, pp. 24-29.

14) 도덕재무장운동은 민족, 종교, 계급, 정파를 초월하여 세계의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발생하였다. 세계도덕재무장은 1965년 서울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에 도덕재무장운동을 전파하였고, 1969년에는 문교부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에 확산되었다. 도덕재무장운동은 4개의 도덕 표준과 7개의 지도이념을 표방하는데, 7개의 지도이념 중 개변주의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변은 MRA/IC(도덕재무장) 이데올로기의 꽃이요 열매이다. 오늘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으로 세계혁명을 달성해 보겠다는 것인데 공산주의의 그릇된 방법에 의해서 인류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MRA/IC 이데올로기는 개인 개변과 세계 개변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http://www.mrakorea.or.kr/>)

민족, 종교, 계급, 정파를 초월하겠다는 도덕재무장의 실체는 반공주의에 다름이 아니다. 도덕재무장이 표방하는 평화는 공산주의가 내세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부정하는 대립항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 운동은 반공주의를 프로파간다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합치한다.

명을 할당받은 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폭로와 비판의 형태를 띤 시 「극비」는 시인의 존재 방식에 관한 진술이다.

시인의 존재 방식인 낙태는 무엇인가? 낙태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다. 낙태된 자들이 인류를 구성하고 “낙태에 의해 세계는 존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류의 또 다른 존재방식으로 일컬어지는 익명과 인류에게 가해지는 “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먼저, 익명은 이름을 숨기는 것이다. 이름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를 지시하는 것에 관한 합의이다. 합의는 존재와 이름 사이의 일치를 보장한다. 이름은 존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각 존재의 특이성이 된다. 따라서 이름을 은폐한다는 것은 ‘나’와 ‘너’의 특이성을 제거하고 그들을 인류로 환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해부학적 상상력으로 표현된 “칼질”은 그러한 환원을 시행하기 위한 권력-장치의 메커니즘으로 제시된다. 왜 세계의 배후가 사람들에게 낙태 당한 위치를 할당하는가? 그리고 배후는 사람들을 어떤 집단성으로 환원하려고 하는가?

살인자들(“육군, 해군, 장군, 명군”)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 세력을 상징한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2공화국이 부분적으로 시행한 ‘가족계획’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했다. 가족계획은 인구 관리 정책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의 부흥, 경제 부흥을 통한 반공·안보·가정의 행복 추구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것은 인구와 국가 경제성장률을 함수관계에 두어 정치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인구를 관리하고, 국가의 통치술을 근대적인 통치술로 전환하고자 했다.<sup>15)</sup> 이 정책에 의해, 인구는 국가의

15) 다음의 사실은 당대 인구 관리 정책의 핵심을 보여준다. “인구 증가 문제는 경제성장률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 수준과 출생률은 함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구 증가가 정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가족계획은 국가적 지출을 절약하는 기초 작업인 동시에 식량 문제, 주

적극적인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인구는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국가 통치술의 확립에 연계되어 관리의 영역으로 포섭된다. 따라서 인구를 구성하는 신체도 정체화의 대상으로 유의미해진다.<sup>16)</sup>

나는 생명과 죽음을 믿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았고  
 순리를 믿지 않았다 오로지 나는  
 안보차원만을 믿는다. 우리 민족이 균등하게  
 행복을 나누기 위하여 나는  
 안보차원의 성욕을 느끼고 안보차원이 가족계획을 했다  
 안보차원의 식욕을 느끼고 안보차원의 식단을 차린다  
 호홉이 그렇고, 연애가 그렇고, 수면이 그렇고,  
 노동이 그렇다. 진실로 나는  
 소문을 믿지 않았고 선거를 믿지 않았고  
 상식을 믿지 않는다.

「안보차원의 시」 부분<sup>17)</sup>

생명과 죽음, 성경과 순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안보 차원만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과 식욕은 안보 차원의 목적 아래에서 가족계획과 식단(혼분식 장려)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호홉·연애·수면·노동도 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포섭된다.

택 문제, 국방력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족계획사업 암초에, 『매일경제』, 1972.01.24. p. 7.)

16) 미셸 푸코는 주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통제와 의존에 의해 타인에게 복종하는 복종화된 주체, 다른 하나는 자기인식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결합된 주체이다. 이 문장의 주체화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Michel. Foucault, “Pourquoi étudier le pouvoir: la question du sujet” in DE IV, p. 227; 오생근, 『미셸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p. 172에서 재인용)

17) 장정일, 「안보차원의 시」, 『통일주의』, 열음사, 1989, p. 42.

푸코는 근대에 이르러 작동한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두 축에서 분석한 바 있다. 하나는 개인의 정상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노동하는 신체를 생산하는 규율 권력, 다른 하나는 인구를 경제 과정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생체-권력<sup>18)</sup>이다. “최고 권력을 상징하던 죽음의 오랜 지배력은 이제 육체의 경영과 생명의 타산적 관리로 옮겨간다”는 푸코의 진단을 참조하면, 196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신체와 생명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규율·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종으로서의 인간이 쟁점이 되는 ‘생물학적 근대성의 문턱’, 달리 말해 한국 사회의 생체-정치는 장정일이 태어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인은 당대의 권력과 자신의 주체화를 운명론적으로 연결하였다.

「안보차원의 시」와 「극비」를 겹쳐 읽으면, “나태”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 권력에 포획되었다는 점,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신체와 인구로 표상되는 생명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 그런 삶이 동시대인들이 처한 보편적 상황이라는 점을 상징한다.<sup>19)</sup> 「극비」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과 그것의 결과인

18) 생체-권력의 작동과정으로 유지되는 정치가 생체-정치이다. 푸코는 생체-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생명의 움직임과 역사의 과정을 서로 간섭하게 하는 압력을 “생체-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생명과 생명의 메커니즘을 명확한 계산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권력-지식을 인간 생명의 변화 요인으로 만드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생체-정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이는 결코 생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생명이 완벽하게 통합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중략) 그러나 사회의 “생물학적 근대성의 문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은 인간 자신의 정치적 전략에서 종(種)으로서의 인간이 쟁점으로 대두되는 시기에 자리한다.”(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 제3판, 나남출판, 2010, pp. 162-163)

19) “벌거벗은 생명을 정치 영역에 포섭하는 것이야말로 주권 권력 본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아감벤의 말을 상기할 수 있다. 근대국가는 생물학적 생명을 권력의 계산 중심에 놓으면서 권력과 생명의 교차점이 발

자신의 실존을 심문한다.

그는 들뢰즈의 『푸코』를 언급하며 권력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아래의 글은 장정일이 이영준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요사이 제가 읽고 있는 『미셸 푸코』의 한 페이지에 보면 ‘파시스트적 속도’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들뢰즈의 용어인데 그는, “과학의 기술화,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국내에서 매우 능률적이고 고속도의 관리와 억압체제를 만들어 냈고 국제적으로는 초고속의 군사 기술을 앞세운 초강대국의 제국주의를 탄생시켰다”고 말하고 “가속도를 지닌 근대이성과 그것에 기초한 여러 학문들은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을 폭력적으로 가속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죽이고 신을 죽인 것도 근대 이후에 생겨난 이 ‘파시스트적 속도’라는군요.<sup>20)</sup>

장정일은 국내 권력이 기술화, 산업화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 복무한다고 본다. 인용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국내와 세계의 공모관계 속에서 관리와 억압 체제를 만들고 노동에 대한 신체의 능률성을 높이려고 인간의 생활 리듬에 개입한다. ‘파시스트적 속도’는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신체와 생활을 모두 속도로 환원한다. 위의 인용문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를 추동하는 국내 권력이 관리와 억압을 통해 인간을 파시스트적 속도에 맞게 규율한다는 점이다. 국내의 산업화와 기술화의 추진, 국가 권력과 자본

---

생한다. 이에 따라, “벌거벗은 생명은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일정한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생물학적 신체에 깃들”게 된다.(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p. 42, p. 269)

- 20) 장정일, 『장정일의 독서일기 2』 2판, 범우사, 2003, p. 212. 이 편지는 1989년 8월 10일에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참조하면, 장정일이 이른 시기에 푸코의 권력 이론을 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의 공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70년대이다.<sup>21)</sup> 자본주의 체제에 공모하는 권력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본격화된 국가동원체제이다.

국가동원체제는 “특정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일상생활의 모습”<sup>22)</sup>을 변화시킨다. 국가동원체제는 사람들을 인구로 환원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여 개인의 신념, 가치관, 행동의 기반이 되는 신체를 규율하는 권력의 미시적 작용인 규율 권력으로 작동한다. 규율 권력은 신체를 공간 속에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고 규율한다.<sup>23)</sup> 이런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미시적 공간은 학교와 군대, 감옥이다.

학교, 군대, 감옥은 장정일에게 질곡의 공간이자 삶의 경로를 전환하는 특징점들이다. 그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교련을 거부하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sup>24)</sup> 자전소설인 「개인지록」에서는 교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했다고 회상한다. 장정일은 군사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당대의 제도교육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거부하였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서부터 세상은 내 것이었다. 제일 먼저 나는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였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없으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

21)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 상상, 2015, p. 40.

22) 김명숙, 「국가동원과 ‘가족계획」, 공제옥 편, 『국가와 일상』, 한울, 2008, p. 259.

23) 규율은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육체의 힘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정치적 복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육체의 힘을 감소시킨다. 즉, 규율은 신체를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맞게 훈련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p. 217)

24) 장정일, 「‘포스트 여호와의 증인’이 가능한가」, 『한국일보』, 2018.12.13. p. 29.



는 줄 알았다. 나는 그 당장이라도 학교를 때려치우고 싶었다. 커서 구구단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었고 또 그것을 외우지 않아도 잘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건방진 악동에게 학교는 얼마나 싫었던 것이겠는가?<sup>25)</sup>

위의 인용문에서 특기할 점은 공간인 학교와 아버지의 연관이 다. 장정일은 육군 대위였던 아버지를 “복종과 절도를 강요”<sup>26)</sup>하던 폭압자이자 군사정권의 상징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의 삶에서 시선으로 작용한다. 시선은 주체에게 복종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감시이다. 개인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감시를 감각하고 그것을 내면화한다.<sup>27)</sup> 아버지의 유사 공간인 학교는 국민의 신체와 국민 수를 관리하고 시험, 품행 관리 등의 방법으로 신체를 규율하는 공간이다. 학교에서 가하는 규율은 복종과 절도를 강요하던 아버지의 규율과 유사하다.

박정희 체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군사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교육과정령을 제·개정하여 군사교육을 법제화하였다. 1969년에는 교련을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학교의 병영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표 1>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 장정일, 「개인기록」, 최윤 외, 『자전소설 나의 나』, 문학동네, 1996, p. 49-50.

26) 장정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김영사, 1996, p. 54.

27) “시선은 감시하며, 각자는 이것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기에 이른다.”(물린 고든,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출판, 1991, 192쪽) 주체는 권력관계인 상위 심급, 상위 심급으로부터 복종을 요구받는 하위 심급으로 구성된다. 주체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권력관계 대신 스스로 자기를 규율한다. 푸코는 이런 상황을 두고 “수감된 자가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미셸 푸코, 앞의 책, p. 312)

〈표 1〉 교련 교과와 내용<sup>28)</sup>

항목	구체적 내용
교육목표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반공통일의 신념에 투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른다. 군사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강인한 체력을 배양하여 국토방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단체 훈련을 통하여 규율생활을 익히고, 단결심을 굳게 함으로써 활달한 기풍과 국가에 봉사하는 태도를 기른다.
지도 내용 (남자)	제식훈련 내무 교육 및 군법 군대 예절 위생 및 구급법 총검술 소총
지도상의 유의점	교련 교육은 군사 일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국방의 중요성과 반공 통일에 투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르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풍부한 학습 자료를 통하여 실제로 보고 실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활동교육 과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련과의 평가는 객관적인 필답 평가에 의하지 않고 기능의 숙달을 주로 하는 평가이어야 하고 평소 지도와 연관하여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교련 교과와 목표는 학생이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내면화하여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련을 통해 “단체 훈련을 통하여 규율생활을 익”히고 “기능의 숙달을 주로 하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장정일은 학교를 복종과 절도를 강

28) 이 표는 교육과정령 중 1969년 3월 1일에 일부 개정·시행된 문교부령 제207호 부록3과 1972년 3월 1일에 개정·시행된 문교부령 제286호 부록4를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요하는 아버지와 유사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학교는 품행, 시행, 숙제, 연령, 학습의 난이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학생 개개인을 공간적으로 배치한다. 공간적 배치는 학생들 간의 서열을 통해 이루어진다.<sup>29)</sup> 학교는 학생이 특정한 가치관과 신념, 행위를 내면화하도록 만들고 지식과 능력의 위계질서를 명시하여 학생에게 각자의 자리를 할당하는 공간이다. 1960~1970년대는 중학교 입시 철폐,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교육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였다.<sup>30)</sup> 그중 평준화 정책은 최종학력 경쟁(입시 경쟁)을 격화시켜 과도한 학력 경쟁을 초래하였다. 학력주의는 제도교육의 일정한 단계를 이수한 개인의 교육 경력을 우선시한다. 학력은 개인의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능력과 직결되지 않기에 형식적 지위를 표시하는 상징적 가치에 불과하다.<sup>31)</sup>

고서점의 주인을 꿈꾸던 장정일은 학교를 자신의 꿈과 무관한 공간이라고 인식한다. 그는 학교의 지식을 상징하는 구구단은 자기 삶에서 무용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시에서 자기 삶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지식과 학력이 창출하는 효과를 표현한다.

내 아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다  
국민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경북대도

29) 미셸 푸코, 앞의 책, p. 231.

30) 이기훈, 『무한경쟁의 수레바퀴 - 1960~1970년대 학교와 학생』, 서해문집, 2018, pp. 30-31.

31) 강창동, 「한국 학력주의의 형성과정과 성격」,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제4집 제1호, 1994, p. 3.

육사도  
하바드 유학도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으려다.

원자탄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삼고  
고문을 하고  
정보부를 만들고  
독점자본과  
법률과  
세금을 빼앗는 일  
놈들은 어디서 배웠나?

내 아들이  
나는 너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다  
나는 너를 비밀결사처럼 키우려다  
나의 아들  
나의 모세  
나의 예수.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 전문<sup>32)</sup>

인용된 시는 제도교육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학력의 실체를 보여 준다. 제도교육의 지식은 전쟁과 고문, 독점과 착취 등 자본주의적 권력 작동의 수단과 방법이다. 학교는 개인에게 규범과 지식을 전수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의 신체를 관리하고 복종화된 주체를 양산한다. “원자탄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삼고 /고문을 하고 /정보부를 만들고 / 독점자본

---

32) 장정일,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 『통일주의』, 열음사, 1989, pp. 85-86.

과/ 법률과/ 세금을 빼앗는” “놈들”은 복종화된 주체를 생산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배 세력이다. 또한 그들은 학교의 지식과 학력에 의해 권력관계에 편입하게 된다.

「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은 학교를 “귀를 찢어내는 주형”<sup>33)</sup>으로 본다. 또한 억압하는 받는 자와 억압받는 자 모두 주형에 의해 생산되는 복종화된 주체로 보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귀를 찢어내는 주형”(학교)에의 편입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 경로와 반경을 결정한다. 학교가 국가와 자본주의의 작동을 재생산하는 사회화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회 규율을 체화하고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자는 정상적인 삶의 경로를 걷고 지배적인 권력관계에 편입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는 비정상의 범주(“모세”, “예수”를 믿는 여호와의 증인)에 배치된다.

마지막 연에서 그는 복종과 규율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탈속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대체한다. 초월적 존재인 시의 화자는 권력과 자본의 재생산 공간인 학교에 아들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 또한 신이 모세와 예수에게 앞으로의 삶이 고난의 연속임을 계시한 것처럼, 화자도 기존의 관습과 제도를 거부하여 겪게 될 아들의 고난을 예비한다. 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주체의 조형 공간인 학교에 탈속적이고 초월적인 종교를 대치시켜 권력 재생산에 복무하는 삶의 형식을 거부한다.

33) 장정일, 「귀가 된 인간」, 『햄버거에 대한 명상』 3판, 민음사, 2020, p. 12. 해당 시구는 사회가 원하는 주체성으로 조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3. 서술 주체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 여호와의 증인과 독학

#### 3.1. ‘여호와의 증인’과 제도교육의 거부

장정일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선택했다. 장정일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선택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여호와의 증인은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1930년대 말에 일제의 징병제 확대에 맞서 병역을 거부하였다. 일명 등대사 사건<sup>34)</sup>으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의 징병 거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들의 병역거부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sup>35)</sup> 여호와의 증인은 1950년대 말에는 병역거부와 1960년대에는 수형거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57년 7월 14일, 언론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공판에 부쳐졌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sup>36)</sup>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 문제의 화두로 부상하게 된 계기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 최초로 신앙에 의한 ‘병역 거부 사건’(기사 본문에는 병역기피 사건으로 표기)이라는 점, 신앙

34)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황 숭배를 거부하고 전쟁 반대 사상을 유포하면서 징병을 거부하자, 일제가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1939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7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건이다. 등대사는 일제 시대에 여호와의 증인의 출판 법인 ‘체인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를 지칭하던 용어이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가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다」, 『여호와의 증인 공식 홈페이지 뉴스』, 2019.12.12. <https://www.jw.org/ko/>

35) 한홍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진 길」, 『프레시안』, 2007.10.0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53725?no=53725>

36) 「敎理따라入隊않겠다고 「여호와의 證人」 信徒 兵役기피로公判에」, 『경향신문』, 1957.07.14. p. 3.

에 의한 병역거부가 법의 신문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여호와의 증인인 김경태의 병역거부에 대한 공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다. 공판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내걸고 그 교리에 의하여 살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던 자에 대한 법은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여 체형을 인도하고 있으며 (중략) 재판장은 「국민의 삼대 의무인 하나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교리를 미끼고 함을 더욱 가증하다」는 이유로 금고 일년의 실형을 언도한 것이다. 그런데 김 피고인은 이날 언도 공판에 앞서 형무소에서 자필로 쓴 진정서를 재판장에게 보내었다는데 내용은 「나는 교리를 따라 살상 행위는 죽어도 하지 않기 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만약 나를 입대시키려거든 차라리 실형을 언도해달라」는 것이 적혀 있었다 한다.<sup>37)</sup>

병역 거부에 대한 재판장과 피고인 김경태의 입장 차이가 중요하다. 재판장은 “그 교주가 그러한 교리를 미끼로 신자 획득을 기도하고 있다는 일부 정보가 있으니 한탄할 노릇”<sup>38)</sup>이라며 병역 거부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신념을 병역기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선 국군 장병들의 고향을 모른다며 피고인을 질타하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념에 대해 “군당국에 말하여 위생병 같은 직위를 맡으면 오히려 피고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하여도 더욱 성스러운 것이 아니냐”<sup>39)</sup>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김경태는 병역이 국법이라 할지라도 살상 행위가 “대우주의 지배자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이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살상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까

37) 「敎理憑藉 忌避者에 禁錮一年言渡」, 『조선일보』, 1957.07.25. p. 2.

38) 위의 기사, p. 2.

39) 「「여호와의 證人」 兵役 기피 事件」, 『경향신문』, 1957.07.14. p. 2.

답”<sup>40)</sup>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법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신념을 전면으로 부인하지 않고 사법의 관리 영역 안으로 포섭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역거부자는 국가의 법과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초법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폭력의 문제에 접근하여 사법에 맞선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의무와 교리에서 강조하는 양심이 충돌한다는 점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사법에 포섭되지 않을 경우, 사법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국가의 의무인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또한 교리의 양심을 사법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반공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운 국가의 통치성과 냉전체제를 전면으로 부인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된다는 것은 법의 심문과 처벌의 대상<sup>41)</sup>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정일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냉담한 인식을 냉전 시대의 산물로 본다. 그는 “반공이데올로기 자체가 국시였던 박정희 시대에 여호와의 증인의 군입대 거부는 그야말로 ‘때려 죽일’ 사이비”<sup>42)</sup>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 해석에 대한 지배권과 여론에 의해 공공연히 위임된 유권해석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단과 사이비로 몰아세

40) 「金에 禁錮 2年 求刑」, 『조선일보』, 1957.07.15. p. 3.

41) 사법부는 1950년부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1만 7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형기를 선고해 왔다. 또한 2012년에는 벌금형에 그치던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사법인 위치타워성서책자협회, 『2013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 Pennsylvania: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2013, pp. 39-41; 윤용복, 「외국신종교의 한국사회 이식과정과 그 의미 (5):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위치」,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제30집, 2014, p. 46)

42) 장정일, 「개인기록」, 최윤 외, 『자전소설 나의 나』, 문학동네, 1996, p. 50.



우고 감옥으로 보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한다”<sup>43)</sup>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유권해석의 문제로 다루는 사법과 여론을 비판하였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전물장병에 대한 묵념을 거절하고  
오후 다섯 시의 국가는 부르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 선거에 참여치 않는다.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교련시간에 빠질 것을 결심하게 되고  
아예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되고  
입대를 기피한다.  
만 명 중의 하나,  
만일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면  
친지의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극단적인 광신을 고치기 위해  
계쉬타포는 너를 때리고 너를 가둔다  
그러나 너를 박해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뜻일 것인가?  
그대 전신을 새파란 전깃불로 오징어 굽고  
실컷 그대 뇌수를 고추가루 물로 부풀리는 자는  
여호와도 계쉬타포도 아닌  
그 누구의 의지도 아닌  
바로,  
당신의 의지!

「만일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전문<sup>44)</sup>

43) 장정일, 『장정일의 공부』 2판, 알에이치코리아, 2015, p. 19.

44) 장정일, 「만일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통일주의』, 열음사, 1989, p. 32.

이 시는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가정하에 앞으로 할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감내해야 할 고통을 보여준다. 당신이 할 행위는 “국기에 대한 경례”,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 “국가”, “대통령 선거”, “교련시간”, “고등학교 진학”, “입대” 등이다. 이 행위들은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의 규범을 거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행위의 대가는 당신이 “극단적인 광신”으로 규정되고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당신의 행위와 행위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은 신과 공안세력이 아닌 당신의 의지로 개시된다. 이 시의 화자는 폭력에 저항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공감하면서도, 신념이 신앙이나 권력에 대한 반발의 역학 아래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즉, 화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의지임을 보여준다.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심급이기에 앞서 “스스로를 움직이고자 하는 역량,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역량”<sup>45)</sup>이다.

그러나 의지는 저항의 조건에 불과하다. 국가동원체제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대등한 개인은 존재하기 어렵다. 통치성은 개인에게 제한된 삶의 반경(the radius of life)과 선택지를 부과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려는 자에겐 비정상성, 범법자 혹은 비행자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애초에 장정일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이에 맞서 장정일이 시도하려는 저항도 권력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증인 신앙의 선택은 국가의 통치성에 저항하기 위한 몇 없는 방편이면서 주형에서 이탈한 대가로 특정한 자리와 주체성을 할당받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할당받는 주체성은 비행자이다. 왜냐하면 박정희 체제의 통제는 법과 법률, 징벌이 아니라 기술과 통제, 규범화<sup>46)</sup>에 따라 개인에

45)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2판, 궁리출판, 2016, p. 109.

46) 1973년 『경향신문』의 기사에서는 47종을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기

게 제한된 삶의 반경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체제의 시스템은 규범, 사회, 위험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형벌의 새로운 합리성의 틀을 마련한다. 이 틀은 법률 위반자를 일탈자, 비정상인 등으로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교정·갱생·치료를 정당화한다. 비정상성은 언제나 정상성과 상보관계에 놓인다.<sup>47)</sup> 장정일은 정상인을 생산하는 학교를 이탈하여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한 행보로 인해 비행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비행자는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단순한 범법자와는 달리 범법 행위에 선행하는 본능·성격·성향을 가지고 존재로 규정된다. “비정상인-비행자-위험인물이라는 계열”이 “법과는 구별되는 비교, 계층 구분을 위한 코드”<sup>48)</sup>인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속에서 말이다. 비행자는 규정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범죄 상황, 법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

존의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경범죄 처벌 대상을 56종으로 늘린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9개의 항목은 개정 이전에 훈방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 행위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9개 항목에 대한 처벌이 과료, 벌금, 구류로 가중되었다. 이 기사는 “경범죄 대상 가운데는 그 시대의 사회 풍속이나 사회의 도덕규범에 속하는 것들도 있어 이러한 행위 등을 법률로 명문화, 처벌한다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따를 우려가 있다”라는 일부 여론을 인용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輕犯 대상 56種으로 擴大』, 『경향신문』, 1973.01.15. p. 7)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나 미풍양속과 같은 도덕규범이 법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카이 다카시의 논리에 따르면, 사법이 교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법률 내부 논리에서 결코 도출될 수 없으며, 이는 정신의학적인 담론편제로 가능하다. 규범은 비정상인과 위험인물 등을 규정하는 평가의 원리이자 척도이며, 평가의 준거점은 ‘평균’이다. (사카이 다카시, 오하나 역, 『통치성과 자유』, 그린비, 2011, p. 147) 따라서 박정희 체제의 법 개정은 규범을 법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이 규범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7) 누스바움은 제도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뒷받침될 때 유지되는 것이면서 제도는 법에서 맡은 적절한 역할에 대한 규범을 통해 정치적 심리 상태를 구체화·교육·표현하기도 한다.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p. 40)

48) 사카이 다카시, 앞의 책, p. 143.

어머니, 당신 아이는 소년원에 갇혀 있어요.  
 매일 고참들의 신발을 빨아 행구며  
 콧노래를 흥얼거린 사이  
 어머니 당신 집이 불타요  
 그리고 고삐 묶인 말처럼 아이는 발을 굴러요.  
 당신이 강요한 천년왕국설의 신앙을 피해  
 딱딱한 방석 위에서 두 시간씩 앉아 조는 집회를 피해  
 저녁마다 도망을 했던 아이  
 더 도망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한 곳에서  
 덜컥, 덜미를 잡혀 버린 아이가 소년원에서 양말 벗은 발을 굴러요.  
 이 모두 당신이 예견했던 술한 계획들의  
 사소한 일부겠지요.

「불타는 집」 부분<sup>49)</sup>

신앙의 선택은 학교 중퇴를 허락지 않았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신앙은 당장 맞닥뜨린 아버지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선택에 따라 치를 대가로부터는 장정일을 구원하지 못했다. 장정일은 학교를 중퇴하고 폭력 사건에 연루돼 대구교도소 미결수 방에서 수감되었다. 그는 소년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는 죄인을 수감하고 벌을 주는 공간인 감옥이 가장 결백하고 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감옥에서 부조리와 “기도로 죽일 수 없는 조직 혹은 제도라는 또다른 아버지의 모습”<sup>50)</sup>을 목격한다. 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감옥은 비행 환경을 양산한다. 환경은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는 근간이자 요인”<sup>51)</sup>이다. 범법자들이 감옥에 몰리면서

49) 장정일, 「불타는 집」,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8, p. 56.

50) 장정일, 「개인기록」, 최윤 외, 『자전소설 나의 나』, 문학동네, 1996, p. 53.

51) 푸코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들의 계열이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생물학에서 라마르크

비행 환경이 조성되고 비행 환경에 의해 범법 행위가 발생한다. 이처럼 감옥은 순환과 인과성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감옥은 교정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수감자들을 다시 범법자로 내모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그는 19세가 되자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원으로 이감된다. 그에게 소년원은 “일정기간 철장 안에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옥”이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과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였고 “훈련사열이나 내무사열과 같은 제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군대”<sup>52)</sup>였다. 소년원은 장정일이 그토록 거부했던 제도교육과 군사 시스템이 집적돼 있는 공간이다. 소년원은 ‘개인에 대한 분류, 공간으로의 배분, 개인 간의 등급 설정, 육체의 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통제되지 않은 신체를 순종하는 신체로 만드는 감옥이다.<sup>53)</sup> 따라서 범법자인 장정일의 신체와 주체성은 사회체의 모든 기제를 재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정일은 어떻게 ‘몹쓸 지옥’과 같은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견뎌냈을까?

---

와 함께 출현했습니다. 물론 물리학에 이미 존재한 개념입니다만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거리를 두고 미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어떤 작용의 순환이 기초하고 있는 근간이자 요인입니다. 이 환경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과 인과성입니다.” (미셸 푸코, *오토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pp. 46-47)

52) 장정일, 앞의 책, p. 55.

53) 푸코는 감옥이 일차적으로 “추정된 것이든 요구된 것이든 개인들을 변모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근거를 두고 수감된 신체를 “가두고 교정하고 순종하게 만들으로써, 사회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기제들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2003, 354쪽) 감옥이 사회의 모든 기제들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푸코의 언급은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푸코는 권력이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비행환경을 재활용하는 전략적 상황을 ‘장치의 전략적 메우기’라고 지칭한다. (조르조 아감벤·양창렬,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p. 42)

## 3.2. 독학을 통한 서술 주체로의 이행

① 가슴이 막힐 정도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책읽기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까닭은 아버지가 무서웠고 너무 미웠기 때문이다. 비록 불교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으나 분명 그와 내가 전생에 어떤 악연으로 맺어진 것이 분명하리라고 느꼈던 아버지라는 인간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나는 늘 책 속으로 필사의 도피를 했다. 네모난 사각을 펼쳐 내 얼굴을 가리는 것만이 내가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었고 네모난 사각을 연속해서 펼치는 것만이 다른 세계 또는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출구였다.<sup>54)</sup>

② 그제서야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저 돌이 웬지 잘못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어 가던 길을 되돌아와 길 위의 돌을 요리조리 놓아보던 지독한 결벽증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그때 얻은 독서에 대한 끈질긴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는 방법으로서의 결벽증은, 내가 사회나 현실과 싸워야 되는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전술로 재등장한다.<sup>55)</sup>

③ 어디서부터 모순의 고리를 풀어야 될지 알 수 없이 얽히고 설킨 생지옥에서 1년 6개월 견디게 한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들이었다. 나는 그 소년원에서 다시 한번 책 읽기 속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현실과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내 식의 방법으로 빠져들었다.<sup>56)</sup>

①에는 장정일의 독서 편력의 동기가 드러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정일의 독서는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전개된 자유교양운동의 영향 하에서 수행되었다.

---

54) 장정일, 앞의 책, p. 48.

55) 장정일, 위의 책, p. 49.

56) 장정일, 위의 책, p. 55.

1960년대 말, 정권의 관변 운동인 자유교양운동이 전개되고, 대중의 열망이 정책에 조응하여 독서 열풍이 불었다. 한 언론은 월 소득 5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높은 독서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57)</sup> 또한 지식인이 “신문을 펴서 읽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 포켓판 같은 문고를 손에 들고 암전히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여사무원들, 통통한 몸매에 실용적인 바바리를 걸치고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중년 직업여성들”<sup>58)</sup>을 관조하는 모습에서도 독서열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대중들이 일정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면서 독서의 위상이 달라졌다. 문화 콘텐츠의 수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한정적이었다. 저소득층이 비교적 쉽게 가질 수 있는 취미는 돈이 들지 않는 독서였다.<sup>59)</sup> 독서는 출세주의에 배치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국력<sup>60)</sup>을 결정하는 문화정치로 이해되었다.

독서 열풍은 개발주의와 군부독재가 상정하는 규율 주체를 생산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자유교양운동은 고전 읽기를 통해 전통 문화와 지식을 재인식하여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되찾고 이를 토대로 근대화를 수행하는 국민의 주체성을 확립하자는 이념을 표방한

57) 「책 얼마나 읽나...」, 『매일경제』, 1978.09.26. p. 8.

58) 박영혜, 「독서」, 『조선일보』, 1978.06.22. p. 5.

59)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우리가 사랑한 책들, 知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p. 157.

60) 독서율은 국가의 문화력과 국력, 근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지식인들과 언론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출판 문화와 독서문화의 실태를 논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당대의 독서 담론은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국민의 독서열을 함수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독서를 조국 근대화와 문명화의 중요한 지표로 의미화했다는 점이다.(「出版界 25年」, 『조선일보』, 1972.03.14. p. 5; 윤재천, 「四季의 독서」, 『경향신문』, 1975.11.12. p. 5)

다.<sup>61)</sup> 자유교양운동이 생산하려는 주체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은 근대화에 걸맞은 근대 지성을 갖춘 주체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자유라는 변수로 인해 개인이 민족중흥과 근대화의 지배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다. 대중은 지식과 교양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자유를 열망한다.

독서에 대한 열망은 권력의 의도를 초과하는 외적이고 세속적인 요인을 동반한다. 교양과 지식의 습득은 신분 상승이나 계급 교란, 경제력 확보 등과 같은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보편적 동기를 내포한다. 특히 독서의 동기를 가장 강력하게 구성하는 것은 자신의 인신 구속적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적·인적·경제적 자원의 확보이다. 교양과 지식을 접한 대중은 권력의 의도를 초과하여 장서거나 소설가의 꿈을 꾸었다.<sup>62)</sup>

장정일은 독서를 폭압적인 아버지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도피 행위로 인식하였다. 책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자리를 상상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매개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거나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기 위한 사물로 기능한다. 또한 “네모난 사각을 연속해서 펼”치는 독서는 아버지

61) 당대 담론은 자유교양교육을 주창하던 허친스를 한국식으로 인식·해석하면서 자유교양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였다. 가령 김규남은 “자유교양이란 자유에 관한 학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가 이어받은, 또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고전은 이러한 자유교양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을 명백하게 이해 발전시킨다. (중략) 그러므로 학생이 자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통한 교양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허친스의 주장을 인용하며 자유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김규남은 전통을 『삼국유사』나 『율곡전집』과 같은 민족 전통으로, 고전을 전통에 접속하기 위한 매개체로 본다. 고전을 통한 전통 인식은 근대화작업의 밑바탕이 되는 민족문화와 민족 주체성의 재확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박정희 체제의 근대화와 상통한다. (김규남, 「주체성과 자유교양운동」, 『동아일보』, 1968.11.21. p. 5)

62)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pp. 453-454.



의해 촉발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반복 행위이다. 독서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반복 행위라는 점에서 ②의 (강박증의 일종인) 결벽증과 근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죽고 결벽증은 차츰 사라졌지만, 독서 습관은 장정일의 신체에 각인되었다. 어쩌면 결벽증이 독서 습관의 형태로 전환되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독서는 아버지와의 싸움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이고 소년원에서 조성되는 비행 환경에 의해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악무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이다. 책(“네모난 사각”)을 펼치는 일이 “다른 세계 또는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출구”라는 구절을 참조하면, 장정일의 독서가 독서문화를 접한 대중들의 열망에 대치되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장정일의 독서 세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열 다섯 살,

하면 금세 떠오르는 삼중당 문고

150원 했던 삼중당 문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두터운 교과서 사이에 끼워 읽었던 삼중당 문고

특히 수학시간마다 꺼내 읽은 아슬한 삼중당 문고

위장병에 걸려 1년간 휴학할 때 암포젤 엠을 먹으며 읽은 삼중당 문고

(중략)

경제개발 몇 개년 식으로 읽어 간 삼중당 문고

급우들이 신기해 하는 것을 으쓱거리며 읽었던 삼중당 문고

검은 중학교 교복 호주머니에 꼭 들어맞던 삼중당 문고

방학중에 쌓아 놓고 읽었던 삼중당 문고

일주일에 세 번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다니며 읽은 삼중당 문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교장실에 불리어가, 퇴학시키겠

다던 엄포를 듣고 와서 펼친 삼중당 문고

교련문제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을 때 곁에 있던 삼중당 문고

건달이 되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쓰다듬던 삼중당 문고

용돈을 가지고 대구에 갈 때마다 무더기로 사온 삼중당 문고

책장에 빼곡히 꽂힌 삼중당 문고  
 싸움질을 하고 피에 묻은 칼을 씻고 나서 뛰는 가슴으로 읽은 삼중  
 당 문고  
 처음 파출소에 갔다왔을 때, 모두 불태우겠다고 어머니가 마당에  
 팽개친 삼중당 문고  
 흙 묻은 채로 등산배낭에 처넣어 친구집에 숨겨둔 삼중당 문고  
 소년원에 수감되어 다 읽지 못한채 두고 온 때문에 안타까웠던 삼  
 중당 문고  
 어머니께 차입해 달래서 읽은 삼중당 문고  
 고참들의 눈치보며 읽은 삼중당 문고  
 뺨다맞은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읽은 삼중당 문고  
 소년원 문을 나서며 옆구리에 수북이 끼고 나온 삼중당 문고  
 머리칼이 길어질 때까지 골방에 틀어박혀 읽은 삼중당 문고  
 삼성전자에 일하며 읽은 삼중당 문고  
 문흥서랍에 일하며 읽은 삼중당 문고  
 레코드점 차려놓고 사장이 되어 읽은 삼중당 문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며 읽은 삼중당 문고  
 고시공부 때려치우고 읽은 삼중당 문고  
 시공부를 하면서 읽은 삼중당 문고  
 데뷔하고 읽은 삼중당 문고  
 시영물물교환센터에 일하며 읽은 삼중당 문고  
 박기영형과 2인 시집을 내고 읽은 삼중당 문고  
 (중략)  
 어느덧 이 작은 책은 이스트를 넣은 빵같이 커다랗게 부풀어 알 수  
 없는 것이 되었네  
 집채만해진 삼중당 문고  
 공룡같이 기괴한 삼중당 문고  
 우주같이 신비로운 삼중당 문고  
 (후략)

「삼중당 문고」 부분<sup>63)</sup>

63) 장정일, 「삼중당 문고」,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8, pp. 11-14.

1960년대는 외판원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며 전집류를 판매하는 것이 도서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전집류는 외판으로 보급되어 “최하 4천8백원으로부터 최고 3만3천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것”<sup>64)</sup>이었다. 실질적인 독서보다는 장식을 위한 가(假)독서층이 전집류의 주된 구매자였다. 전집 붐은 전집류가 중산층의 지위재(position good)로 기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출판계의 불황을 초래하였다. 출판계는 출판 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 광범위한 독서층(상품 구입자)을 확보하기 위해 문고본을 출간하여 박리다매하였다.

문고본은 ‘독서의 대중화’, ‘교양의 보급화’라는 표어로 아래 시장에 유통되었고, 출판 시장의 전략은 독서 대중의 열망에 합치하는 것이었다. 문고본은 ‘전집물=겉치레 독자, 단행본=보통독자, 싸구려 문고본=가난한 알짜독자’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문고본은 “대중과 밀착”하고 “참다운 소비자”가 구매하는 지식의 보고로 인식된다.<sup>65)</sup>

문고본의 의의는 지식과 교양의 대중화이다. 값비싼 전집류에 새겨진 지식은 일반 대중들에겐 초월적이고 신성한 영역에 속하지만, 문고본은 “사용할 수 없고 분리되어 있었던” 지식을 “그 아우라를 상실한 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려”<sup>66)</sup>지게 하였다. 독점된 책과 지식은 자신만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 15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으로 기억된 삼중당 문고는 사람들에게 한 권씩 수집하고 읽음으로써 하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기억된다.

64) 「年末경기 노리고 쏟아진 全集붐」, 『경향신문』, 1970.12.28. p. 5.

65) 「文庫本 이야기」, 『경향신문』, 1973.04.14. p. 5.

66)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역, 『세속화 예찬 -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난장, 2010, p. 113.

문고본을 통한 교양 읽기는 행위 주체의 욕망과 교양을 자본화하는 속물성<sup>67)</sup>을 내포한다. 교양의 속물성은 행위 주체가 자본주의와 권력관계를 내면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도, 행위 주체들의 앞의 욕망은 주체화의 의지라는 양태를 띤다. 예컨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랄 때, 손쉽게 혹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독서를 통한 독학임을 의미심장하게 고려해야 한다. 독학은 성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이라는 물리적 이동의 한계를 넘어서며,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 잠재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개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삼중당 문고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예지·문학의 정수를 완전 포키트화한 교양의 도서관”<sup>68)</sup>이라는 광고 표제를 내걸고 1975년에 등장하였다. 삼중당 문고는 장정일이 교양의 세계로 출입하는 값싼 출입증이고 독서 세계를 구축하게 된 근간이다. 삼중당 문고는 이광수, 김동인, 이상이나 해밍웨이,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까뮈와 같이 “국내외문학에 편중”<sup>69)</sup>돼 있었었고, 장정일이 문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자양분으로 기능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두터운 교과서 사이에 끼워 읽었던” “특히 수학 시간마다 꺼내읽은 삼중당 문고”는 제도 지식의 경직성과 진중함과는 거리가 멀다. 장정일의 문고 독과는 “두터운 교과서”의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 탐닉할 수 있는 가벼운 놀이이다. “산수시

67) 박숙자에 따르면, 명작에 담겨 있는 좋은 책의 의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엘리트 독서의 취향으로 활용되었다. 그는 식민지 시대에서 교양과 속물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교양과 속물적 가치가 비례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교양(명작)에 새겨진 “근대 지식은 속물적인 양태를 가속화하는 힘”이며, 명작은 속물적 욕망을 추동하면서 속물적 주체를 양산한다.(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푸른역사, 2012, pp. 11-12)

68) 「오늘을 사는 現代人の 예지·文學의 정수를 完全 포키트화한 敎養의 圖書館」, 『조선일보』, 1975.2.12, p. 8.

69) 「본격적인 『文庫 경쟁 時代』 돌입」, 『동아일보』, 1975.02.21, p. 5.

간에 시를 쓰고/ 선생에게 머리를 쥐어박”하고 “국어시간에 시를 쓰고/ 선생에게 참견받”<sup>70)</sup>으면서 열등생으로 치부될 만큼, 제도 교육과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이기도 하다. 장정일은 삼중당 문고 안에 펼쳐진 문학의 세계를 접하고 시를 쓰는 삶을 선택한다.

1년 6개월의 부조리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구축한 독서의 세계 덕분이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는 간수는 없습니다.”<sup>71)</sup>라는 시구를 씌으로써 수감 생활의 부조리함을 견뎌낼 수 있었고, 고참들의 눈치를 보며 수행한 독서를 통해 부조리함의 관성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삼중당 문고는 학생에서부터 범법자, 수감 이후 노동자에서 시인이 되기까지 그의 삶 속에 “이스트를 넣은 빵같이 커다랗게 부풀어 알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감벤은 이러한 사물을 조수라고 일컫는다. “모든 사람은 쓸모없고 얼마간 창피해질 만한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데 “기념품이기도 하고, 일종의 부적이기도 한 이 물건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엇과 바꾸려 들지 않는다.”<sup>72)</sup> 조수는 그것을 간직한 사람의 삶에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자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욕망으로 들러붙어 있다. 장정일이 직면한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나란히 했던 삼중당 문고, 그것은 장정일이 품고 있던 욕망이다.

#### 4. 글을 나오며: 독학자의 존재 방식

학생에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범법자, 범법자에서 노동자, 노동자에서 시인으로 이행한 장정일의 주체화는 독학

70) 장정일, 『열등생』, 『천국에 못 가는 이유』, 문학세계사, 1991, p. 53.

71) 장정일, 『개인기록』, 최윤 외, 『자전소설 나의 나』, 문학동네, 1996, p. 53.

72)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p. 50.

을 수행한 결과다. 독학은 제도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문화적 자본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존재가 지식과 문화를 터득하는 방법이다. 독학은 정전과 제도 지식을 자원으로 삼지만, 정전의 지식을 자기만의 지식체계로 전유한다. 따라서 독학의 학습 체계는 제도교육의 학습 체계와 다르다. 독학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스스로 학업 계획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학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지식 습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70~1980년대 하층민들의 독학은 분명 환대받지 못한 지배구조의 질서로 편입하려는 세속적 욕망을 포함한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은 정치적이다. 그들은 권력이 부과한 자리를 거부하고 다른 자리로 이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통치성은 사람들에게 작업장과 지역·가정과 같은 특정한 장소·신분과 계급과 같은 자리·장소와 거리에 걸맞은 특정한 감각을 분배한다. 사람들은 이런 제한된 반경 속에서 살고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주체화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지는 앞의 의지로 국한되지 않고 주체화의 의지로 확장된다. 이는 자신과 다른 계급의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다른 계급이 되고, 혹은 어떤 곳에 있을지 모를 적성과 소질을 찾으려는 의지이다.

이것은 1980년대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처럼 거시적이지도 집단적이지도 저항적이지도 않다.<sup>73)</sup> 오히려 세속화된 부르주아의 욕망에 가깝고 정치적인 올바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정일과 같은 독학자들은 자리의 나눔과 분배로 형성된 정체성과 자신이 속한 신분과 계급을 의식하지 않고, 혹은 의식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려 한다. 이런 움직임은 공동체의

73) 김원은 비가시적이고 민중답지 않은 서발턴이 한국이라는 로컬 공간에서 생성된 유명이라고 한다. 작가가 되기 이전의 장정일도 민중의 저항 서사에 포함되지 않는 “민중답지 못한 존재”인 서발턴에 해당할 것이다.(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2011, p. 23)

기존 질서나 사람에게 각인된 정체성과 역할, 기능을 교란하고 교란하려는 대상들을 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리바꿈의 방법인 독학은 집단적인 저항 못지않게 충분히 전복적이고 자기해방적일 수 있는 것이다.

장정일과 동시대인인 노동자들도 독학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학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학을 수행했지만, 때로는 자신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 제도교육 기관(일반 학교와 산업체 부설 학교 등)에 편입되기를 원했고, 야학과 같은 대안적 교육 형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면 전태일처럼 자신을 가르쳐줄 대학생 친구 한 명을 갖기를 원했다는 점도 익히 알려진 바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헛된 망상에 젖어있던” 독학의 함정을 통찰하고 독서 모임의 “회원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언제 어디서나 클럽의 발전과 노조의 단결만을 생각”<sup>74)</sup>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듭난다. 이들의 공동체 활동은 협업을 통해 문화 자본을 획득하고 서술 주체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sup>75)</sup>

장정일과 노동자 모두 독학자의 유아론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석정남의 경우 도서관에서 홀로 지식을 섭렵하던 독학을 공동체의 활동으로 대체하면서 독학의 폐쇄성을 경계하였다. 또한 이들의 독학과 글쓰기는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과 같은 저항 담론과 집단적 주체화의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장정일은 독학의 수행 과정에서 촉발되는 부정적인 정념(시기, 질투, 원한, 독선, 오만)이 자신의 성향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비사교적인 태도를 자처하였다. 장정일은 독학자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일관되게 수행했음을 시사한

74)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p. 30.

75) 이형진, 「여공의 독학자적 존재 방식에 대하여 - 여공수기를 중심으로」,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제45집, 2019, p. 180.

다. 그렇다면 독학은 장정일 문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첫째, 그것은 주체가 사회 질서가 정한 자리나 주체로 정체화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학은 당대의 통치술이 비정상성으로 표지한 여호와의 증인, 소년범 등 비행자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비행자가 꿈꿀 수 없는 작가라는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도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교양을 터득할 수 없는 강제적 상황에 놓인 존재가 지식과 교양을 터득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독학의 물적 토대는 독서 열풍에 부응하여 등장한 문고본이다. 문고본으로 수행된 독서는 빈곤한 경제적 상황이 놓인 하위주체가 지식과 교양에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이자 값싼 문화적 취미였다는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근대문학의 서술 주체는 학력과 문해력이라는 상징 자본과 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서술 주체와 독자의 자리는 현실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장정일의 독학과 서술 주체화는 서술 주체를 둘러싼 감각의 분할과 자리 배정, 주체성의 위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학의 민주화를 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정일뿐만 아니라 동시대적인 서술 주체가 수행한 독학과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둘째, 독학은 장정일이 설명하는 자와 설명 듣는 자의 구분을 전제로 삼는 설명의 질서를 부정하고 지식인과 문단의 주류적 경향에 충격을 가한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하는 토대가 된다. 설명의 질서는 설명 듣는 자가 설명하는 자의 설명에 종속되어 자신의 신념, 가치관, 삶의 반경을 결정토록 하는 지적 위계화의 논리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학은 스스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깨닫고 단련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설명하는 자와 설명 듣는 자의 신체들을 하나의 신체 안에 통합하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전개된다. 독학자는 누군가의 설명 없이도 자신의 욕망과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sup>76)</sup> 장정일이 수행해 온 실험적 글쓰기는 독학의 과정에서 체득한 지



식과 교양을 근간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그는 지식인이 구축한 설명적 질서(문학을 통한 대의와 정치운동)를 비판하고 부단한 자기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관리하고 자기 변용을 실천할 수 있는 문법을 구축할 수 있었다. 독학은 사회의 규칙, 법률,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행위인 복종화된 주체성에서 벗어나 자기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윤리적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의 질서(지식인의 말)로 구축되었던 문학장에 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소음을 말로 변용하기 위한 문학의 정치성이기도 하다.

독학은 자신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정체화의 논리 즉 지배(국민, 저자)와 저항(노동자와 민중, 독자)이라는 분할된 틀을 재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자리를 추구한다. 장정일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자리는 서술 주체의 자리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장정일,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민음사, 1988.

장정일, 『통일주의』, 열음사, 1989.

장정일, 『천국에 못 가는 이유』, 문학세계사, 1991.

장정일, 『장정일 문학선』, 예문, 1995.

장정일, 「개인기록」, 최윤 외, 『자전소설 나의 나』, 문학동네, 1996.

장정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김영사, 1996.

- 
- 76) 가령 자크 랑시에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사람은 배우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긴장이나 상황에 강제 덕분에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도 혼자 배울 수 있다.”(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궁리, 2008, p. 29) 이것은 자신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남의 의지에 관철되지 않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이다.

- 장정일, 『독서일기 1』 2판, 범우사, 2003.  
 장정일, 『장정일의 독서일기 2』 2판, 범우사, 2003.  
 장정일, 『장정일의 공부』 2판, 알에이치코리아, 2015.  
 장정일, 『햄버거에 대한 명상』 3판, 민음사, 2020.

## 2. 논문

- 강창동, 「한국 학력주의의 형성과정과 성격」,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 연구』 제4집 제1호, 1994, pp. 1-19.  
 방민호, 「그를 믿어야 할 것인가 - 장정일 소설론」, 창비, 『창작과비평』 제88호, 1995, pp. 79-94.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260.  
 엄경희, 「장정일 시에 나타난 사디즘Sadism으로서의 현실인식」, 한국교육어문연구회, 『어문연구』 제33집 제4호, 2005, pp. 283-307.  
 윤용복, 「외국신종교의 한국사회 이식과정고 그 의미 (5):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위치」,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제30집, 2014, pp. 29-56.  
 이형진, 「여공의 독학자적 존재 방식에 대하여 - 여공수기를 중심으로」, 동남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제45집, 2019, pp. 153-190.  
 황소희, 「비정부기구정치학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교황청」,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제35집 제3호, 2021.집, 국어문학회, 2018, pp. 329-362.

## 3. 단행본

- 공제욱 편, 『국가와 일상』, 한울, 2008.  
 권명아,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2015.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김명인,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김원,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2011.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

- 음사, 2015.
-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 미셸 푸코, 오토르망 역,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 지식의 의지』 제3판, 나남출판, 2010.
- 미셸 푸코, 이혜숙·이영목 역, 『성의 역사 3 - 자기 배려』, 나남, 2004.
-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푸른역사, 2012.
- 사카이 다카시, 오하나 역, 『통치성과 자유』, 그린비, 2011.
-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 오생근, 『미셸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 이기훈, 『무한경쟁의 수레바퀴 - 1960~1970년대 학교와 학생』, 서해문집, 2018.
- 자크 랑시에르, 안준범 역, 『역사의 이름들 - 지식의 시학에 관한 에세이』, 울력, 2011.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무지한 스승 -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2판, 공리출판, 2016.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제2판, 인간사랑, 2011.
-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역, 『세속화 예찬 - 정치미학을 위한 10개의 노트』, 난장, 2010.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새물결, 2008.
- 조르조 아감벤·양창렬, 『장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난장, 2010.
- 채광석, 『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 우리가 사랑한 책들, 知』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투고일: 2024. 11. 20 심사완료일: 2024. 12. 17 게재확정일: 2024. 12. 23)

이형진

소 속: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인문과학대학 607호

전자우편: gogoasia@naver.com

[Abstract]

### A Study on the Birth of Author Jang Jeong-il and Literature Politics

Lee, Hyeong-Jin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cess of subjectivation in which Jang Jung-il formed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the governing technique of micro-power that operates in everyday life and transformed into a writer. First, I looked at Jang Jung-il exploring the governing technique of power that intervened in various hardships in the history of growth in poetry and stating the existence granted from the power relationship. Jang Jung-il recognized and accused his existence composed of a new type of power and its effects. Next, we looked at the practical strategy of Jang Jung-il rejecting the power relationship and transitioning to the subject of narrative. Jang Jeong-il rejected institutional education, the reproductive organ of society, and chose Jehovah's Witness Faith. After that, Jang Jung-il was imprisoned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a space similar to the school he so rejected. He is reborn as a poet by teaching himself. His self-study was carried out in the free culture movement and the reading craze based on literary texts. Self-study is an ethical behavior that draws out one's existence that is excluded from the system and society again. He overcame the logic of identification through self-study and established his place as a writer.

Key words: Jang Jung-il, politics of literature, subjectivation,  
self-study, Samjungdang pocketbook, narration  
subject